시방세계

반야불교사
불사의 모든일 정성껏 하겠습니다.
0344)905-6368 / 011)9934-3512

◇함양 문정댐이 건설되면 지리산 실상사(사진 오른쪽) 인근 1km까지 물이 차게 된다. 인개일수의 급격한 증가로 생태계의 변화는 물론 문화재 훼손이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지리산을 더이상 건드리지 말라"

'지리산댐 건설 백지화' 여론 확산

곳곳에 국보·보물등 문화재

백두산에서 길을 떠난 백두대간은 수천 수만의 산봉우리들을 솟구쳐올리며 남으로 남으로 내려온 끝에, 남은 힘을 모두 갈무리하여 힘차게 솟아올라 한반도 남녘땅에서 한라산 다음으로 가장 높은 지리산을 펼쳐 놓는다.

1967년 국립공원 제1호로 지정될 만큼 빼어난 경관과 함께 민족의 애환을 간직하고 있는 민족의 성산 지리산. 지리산 들어가는 길은 언제나 즐겁고 편안하다. 어머니의 품처럼 후덕한 산이다. 아니 산이라기 보다는 거대한 땅덩이다. 높이가 해발 1915미터, 천왕봉에서 노고단에 이르는 주릉의 길이가 1백여리, 둘레가 8백여리에 이르는 지리산은 산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장대하다. 산맥이라 해야 어울릴성 싶다. 이렇듯 지리산은 크고도 깊어서 골골 살살이 절경을 품고 있다. 평생 버슬길에 나서지 않고 지리산에서 학문에만 매진했던 남명 조식(1501-1572)은 지리산을 이렇게 찬탄했다.

"두류산 양단수(兩端水)를 예 듣고 이제 보니/ 도화(桃花) 뜬 맑은 물에 산영(山影)조차 잠겼어라/ 아희야 무릉이 어디메뇨 나는 옌가 하노라."

지리산은 산 밖의 생명들이 지치고 힘겨울 때, 버림받고 서러울 때, 모든 이들을 말없이 보듬어 달래주는 어머니이다. 봉우리, 골골마다 문수보살의 중생제도의 서원이 서려있는 화엄도량이다. 그래서 종수지리서인 〈감결〉은 지리산을 이렇게 평했다.

"두류산에는 1만 문수보살이 항상 머문다. 그래서 해마다 풍년이 들고 백성들은 온화하다. 속세를 벗어나 깊숙이 숨어 살고자 하는 이들이 이 산을 많이 찾으리라. 훌륭한 도인, 빼어난 선비들이 무수히 들어와 도(道)를 논하리니 훌륭하도다. 참으로 훌륭하도다."

어지러운 세상을 피해 평화롭게 살고자 하는 백성들과 깨달음을 찾는 무수한 수행자들이 지리산으로 향했다. 김수로왕의 일곱 왕자가 들어와 성불한 뒤로 많은 스님들이 이곳에서 깨달음을 얻었고, 지금도 구도자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지리산(智異山)에는 대지문수사리보살(大智文殊舍利菩薩)에서 산 이름이 기원했다는 전설에 걸맞게 신라 544년 연기조사가 창건한 화엄근본도량인 화엄사, 한국 법맥의 연원인 쌍계사, 가야불교 인도 직접전래설이 전해오는 칠불암, 벽송지엄선사의 수행도량인 벽송사 등 200여개의 많은 사찰이 자리잡고 있다. 특히 7점의 국보와 41점의 보물, 51점의 지방문화재, 12곳의 중요사적지 등 유적과 유물이 곳곳에 산재한 불교문화의 보고이다.

◇벽송사 서암에서 바라본 지리산 계곡. 함양 문정댐이 들어서면 서암 바로 밑까지 물이 차오르게 된다.

지리산은 노고단에서 천왕봉까지의 주릉을 중심으로 하여 남·북으로 많은 계곡들이 흘러내린다. 해발 1500미터이상의 능선은 아고산 생태계의 전형을 보이고 있고 정상을 비롯한 고지대엔 고산 침엽수림을 비롯하여 온갖 희귀식물들이 들어차 있어, 우리나라 생물종의 30%가 서식할 정도로 생태계의 보고이다. 올빗나무·사향나무·하늘다람쥐·반달가슴곰·수달 등 천연기념물과 세계적인 희귀동물들이 적지 않다.

우리나라 생물종 30% 서식

그러나 생태계의 보고이자 우리 문화와 역사의 현장인 지리산은 요즘 몸살을 앓고 있다. 무분별하게 건설된 환단도로는 생태계를 단절시켰고, 계곡마다 자리잡은 위락단지는 하류지역 하천수질 오염의 주범이 된 지 오래다. 10여년전 노고단 발치까지 닿는 성삼재 도로가 개통되면서 등산객과 관광객이 몰려들고 식수댐·골프장·케이블카 건설계획 등 무분별한 개발의 목소리가 끊임 없다. 민족의 영산(靈山)이 정부의 개발위주 정책으로 크게 훼손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리산 식수댐 건설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리산 자락인 함양과 산청에 문정댐과 덕천강댐을 각각 건설할 예정이다. 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낙동강물 대신 지리산에 식수용 댐을 건설해 부산·경남권에 상수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자는 취지다.

지역주민들은 이같은 계획이 생태계는 물론 지리산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파괴하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불교계의 반대 움직임은 더욱 거세다. 6월29일 조계사에서 '지리산 살리기 댐 백지화추진 범불교연대' 창립식을 계기로 환경·시민단체와 연대해 댐 백지화 1백만인 서명운동, 지리산 문화재 지키기 등의 행사를 통해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남강댐, 합천댐, 하동댐 등 지리산 양수댐 3기가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 2개의 대형 식수댐이 건설되면 지리산 생태계는 회복불능의 상황에 처할 것이 자명하다. 중산리 계곡과 달궁계곡 등 수려한 계곡이 자취를 감추는 것은 물론 안개 일수의 증가와 일조량 감소 등 이상기후를 초래해 지리산 생태계가 크게 파괴 될 것이다.

지리산 식수댐 건설 계획은 무엇보다 지리산의 환경 파괴라는 단순한 문제를 넘어,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낙동강을 포기하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정부·여당이 96년 대구 위천국가공단 조성계획을 발표하면서 대구·경북의 민심을 추스리고, 이를 반대하는 부산·경남권 시민들에게 양질의 식수를 공급하겠다는 '당근'을 주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의혹이다. 영남지역에서 정치적 교두보를 확보해 정권 재창출을 노리는 집권당과, 이 지역을 정치적 기반으로 삼고 있는 야당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지리산과 낙동강을 이용하려는 속셈에서 비롯된 것이 지리산 댐 계획이라는 정치논리의 산물이라는 시각이다.

생태계 회복불능상태 초래

김석봉 범영남권 낙동강유역 댐반대투쟁위 집행위원장은 "지리산댐 건설계획은 함양과 산청, 진주를 지나 낙동강 하류로 흘러드는 자연스런 흐름을 단절시켜 청정한 남강상류를 오염시키고 남강중류의 수량을 감소시켜 남강하류(낙동강 본류)의 수질을 최수로 전락시킨다. 따라서 남강댐을 상수원으로 삼고 있는 100만 서부·경남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처럼 전문가들은 정부가 낙동강 중류의 집중 오염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 상류지역의 청정수를 낙동강 본류까지 흘려보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낙동강의 수질 개선에 대한 노력을 포기하고, 지리산 댐에 집착한다면, 낙동강도 포기하고 지리산도 파괴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리산댐 문제를 계기로 환경부(수질 관리), 수자원공사(수량 관리), 기초자치단체(상·하수도 관리)가 따로 맡고 있는 수자원관리를 일원화해 통합관리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한정된 수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수량확보 위주의 공급확대 정책에서 수요관리 정책으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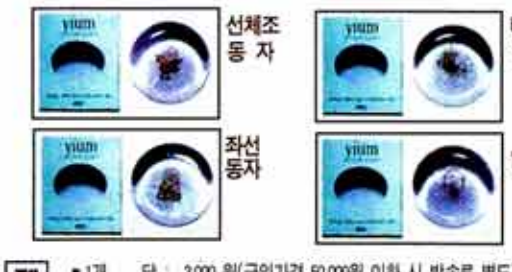
과거·현재·미래, 동과 서, 자연과 인간의 역사가 화합하는 통합의 장 지리산. 구산선문 최초의 사찰인 지리산 실상사 주지 도법스님은 이렇게 호소한다.

"희망의 새 길을 열려면 대지의 상징, 생명의 상징인 지리산에게 물어보라. 지리산은 새 길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본래의 길만이 생명의 길임을 믿고 오늘까지 왔다. 지리산을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 글=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ybgo@buddhapia.com)

◇산청 덕천강댐 상류 500m 지점에 완공 예정인 양수발전댐. 덕천강댐과 연계된 지리산의 2개 식수댐 건설계획이 지역주민의 삶이나 생태, 문화유적에 대한 고려나 여론수렴없이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추진되었음을 입증한다.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몸 가꾸기, 마음 가꾸기 무공해 복합한방 미용비누



제품가격
■ 1개 당 : 3,000 원(구입가격 50,000원 이하 시 발송료 별도)
■ 4개 1세트 : 10,000원 (구입가격 50,000원 이하 시 발송료 별도)옵션가격
■ 200개 이상 : 주문자 디자인 투명비누 속에 삽입 개당 : 2,500원
■ 500개 이상 : 주문자 디자인 투명비누 속에 삽입 개당 : 2,000원

•전화:02-732-1522 / 737-8881 •팩스:02-737-0697 •인터넷:http://www.mahamall.co.kr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건강 잠자리로 바꿔주세요!!
리빙스톤 "요람 침대"(맥반석, 옥 물침대)
낮에 최선을 다 하셨으니 이제 편안한 잠자리로 보약을 드십시오.
좋은 잠자리는 보약입니다.
건강한 잠자리에서 희망찬 인생이 시작됩니다.

▶최고의 안락함! 바로 그 침대
▶최고의 편암함! 바로 그 침대
▶최고의 쾌적함! 바로 그 침대

특징
1 젖먹이 유아부터 수험생, 신혼부부, 노년층까지
2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뜨끈뜨끈하게…
3 유해전자파, 수맥파괴, 핀드기 공포에서 완전 해방
4 침대 바닥에서 원적외선과 음이온이…
5 www.kipa.org 특허기술장터 클릭
▶검색어 (돌황토침대)

상품신안 등록 (제0188136)
상표등록출원(제20-3104)
"요람침대" (기존침대에 얹어 그대로 사용 보료로도 사용가능)

지압품 원적외선 BIO돌침대 (35만~45만원)
지압품 게르마늄 돌침대

침대의 명품
氣 리빙스톤
본사·A/S : 02)424-9427, 2203-7821
◇전국 남여 영업직 모집